

# 금값 연일 신고가, 1년새 1.5배 꺾충... 추가상승 여력 충분

이스라엘-하마스, 우-러 전쟁에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 점점 상승 45년만에 최고상승률 기록할 수도

금 가격이 1년 만에 1.5배 이상 치솟았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에 신호탄으로 상승을 시작한 금 가격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박빙 양상인 미국 11월 대선 등을 이유로 '안전자산' 수요가 지속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온스당 2759.8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전일보다 0.76% (20.9달러) 상승했다. 금 가격은 지난 17일 사상 최초로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한 이후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연초(온스당 2083달러) 대비 676.8달러(32.4%) 급등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5일(온스당 1831.8달러)과 비교해선 928달러(50.7%) 올랐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뉴스시스

현재의 가격 상승 추이가 이어진다면 국제 금 가격은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1979년(연간 133.41% 상승) 이후 45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통상 전쟁 발발, 금리 정책 불투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빠

르게 상승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촉발됐던 금 가격 상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산 우려, 혼전 양상으로 치닫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계속되고 있다.

이달 초 개전 1주년을 맞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지난 16일 이스라엘군의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 지도자 사살에도 교전이 계속되며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으며, 레바논, 이란 등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로 확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어느 한쪽이 승기를 잡지 못하며 점차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에는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쟁 장기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진행되는 미 대선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카밀라 해리스 현 부통령에 대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 하에 박빙 양상을 이어가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 규제 축소, 금리 인하 등 완화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

션 제어와 물가 안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연방 정부의 국제 발행이 늘고 금리가 빠르게 인하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금 가격도 추가 상승할 여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의 상승 요인이 건재한 만큼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관리 기업 SIA 웰스의 콜린 치에진스키 전략가는 "금은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미 연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국 중앙은행이 완화정책으로 선회했고, 이에 따라 귀금속 가치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기업 알터베스트의 마이클 암부르스터 공동창립자는 "금 가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상한선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다"라며 "가격 상승 원동력은 변함이 없고, 통제 불능(out-of-control)인 연방 지출은 궁극적으로는 연준에 달러 평가 절하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배추 계약재배 10% ↑... 김장채소 40% 할인

**민당정,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배추 공급물량 10%·무 14% 확대  
온라인몰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파는 울가를 김장재료가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40%까지 할인된다. 정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한 배추, 무 공급 물량도 각각 10%, 14% 확대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하나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김장재료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구매하는는 매주 1인당 마트 등은 2만 원, 전통시장은 3만 원이다.

같은 기간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돼지고기 역시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최대 20% 넘게 싸게 판매한다. 천일염

과 젓갈류 굴 등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 페스타' (11월 20~30일)를 열어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할인한다.

주요 품목의 공급 안정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1년 전에 비해 10% 늘려 2만4000톤(t)을 공급한다. 이는 김장 성수기에 가락시장에서 28일간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또 이달 말부터 다음달 사이 1000t가량을 비축해 우천 등으로 인한 일시 공급 부족에 대응한다. 또 가정 수요 집중기에는 김치업체의 물량 확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무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늘려 9100t을 공급한다.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는 각각 500t을 도매

시장 등에 공급하고, 일부 물량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 판매한다. 배추는 폭염 피해와 1만t을 푸레 등 가공품으로 공급하고, 천일염은 5000t을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직접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김치·양념채소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도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김장철 거래량이 증가하는 채소류를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세부과제 추진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김포족이 늘어나고 있다. 김장 포기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소비자심리지수 101.7... 1.7p '소폭 상승'

한은, 10월 소비자동향조사  
생활형편·향후경기 전망 등 ↑  
주택가격전망 전월비 3p 하락

앞으로 1년뒤 물가를 예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나 물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채소류 가격이 높고,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년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자들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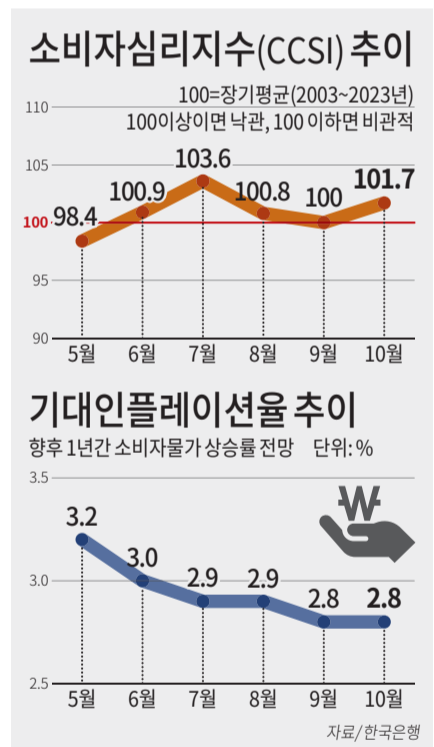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7로 한달전과 비교해 1.7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가지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90)은 전월과 동일했으나 생활형편전망(96)은 2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99)과 소비지출전망(109)은 각각 1p 올랐다. 경제경기판단(73)과 향후경기전망(81)은 각각 2p 상승했다.

그외지수를 살펴보면 주택가격전망(116)이 한달 전과 비교해 3p 낮아졌다. 주택가격전망은 100보다 큰 경우 상승할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100보다 낮을 경우 하락할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여전히 100보다 커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소비자는 많지만 지난달보다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황희진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 장기평균은 107인데 (10월 수치는) 이보다 높다"며 "최근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보면 아직은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지만 다소 주춤하는 추이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향후 1년뒤 물가수준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과 동일했다.

1년뒤 소비자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비중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61.2%)로 전월과 비교해 7.4%p 올랐다. 공공요금은 50.5%로 전월에 비해 6.8%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이 이달부터 정식으로 공포하는 3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나타났다.

3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4개월~36개월 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8개월~60개월 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조사한 집계치다.

/나유리 기자 yu115@

## "정부 투자유도, 산업혁신 실증적 증거 없어"

>> 1면 '100조 간접지원 카드...'서 계속

이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정부가 2022년에 반도체 등 몇몇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반도체를 찍어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하니 삼성전자가 거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다"면서도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지금 일부 '셋다운'에 돌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투자유도가 산업 혁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실

증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경쟁국보다 우리가 세액공제는 많은 편이고 보조금은 없는 편"이라며 "세액공제를 더 늘리기보다 낮은 수준인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기업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처 직접 보조금 난색 표하자, 우회 방법 고민

여당은 부처가 직접 보조금을 반도체 특별법에 담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은 전날(22일) 친한(친한동훈)계 만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특별법 직접보조금을 '무조건 지급하자'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준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가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부처가 대기업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한 후에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추후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